KIPA 通信

韓·美 知所權 通商협상 열려

著作權 保護 상황 對應策 中 논의

知的所有權에 대한 韓·美간 通商협상이 지난 4日과 5日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는 USTR(美무역대표부)가 美통상법 301條(보복조치)발동을 위해 知的所有權에 관한 調査를 진행하면서 86年7月 우리나라가 美國측에 合議해준 著作權 保護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對策을 논의했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韓·美 知所權 通商협상 結果 ◉

	합의됐던 내용	美國측 불만	한국측 설명	협의내용
저작권	86년 7월에 301조 조사도중 양국이 합의한대로 ① 국제저작권 협약에 작년 7월가입, 외국인저작권을 정식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음. ② 77년이후 美國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행정지도를 통해 복제판매되는 것을 막아주겠음 현재 시중에 외서복제판코너를 없애고 책방에서 불법외서 판매단속을 하고 있음.	작년 9월학기에 美國교과서란 해적판이 대학가에 범람, 美國측 손해가 많았음. 올해 3월에도 그 재판이 우려됨. 美國출판협회는 이 해적판이 아직도 2백만권이 在庫로 남아있다고 함. 이를 수거 폐기해야 함. 현재까지 韓國정부단속엔 만족치 못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단속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실천해야 함. 이미 발행된 해적판이 시판되도록 로열티를 받는 문제는 美업계가 관심이 없음. 美의학서적은 4만~5만원짜리가 해적판은 1만원미만에 거래됨.	대학가의 교과서 기근현상을 막고 경제성을 위해서도 로열티를 받고 해적판을 판매토록 해줄것. 과도기적 현상이므로 해적판은 앞으로 점점 없어질것임. 해적판 출판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음. 26개 韓國업체중 12개업체는 이미 과태료(5만~10만원)를 물리고 있음. 앞으로는 면허취소등 강력조치하겠음.	美國측이 韓國측 약속을 美업계에 알리고 그 반응을 곧 전달하겠음.
파이프라인(未시판특허품)	80년이후 美國에서 특허를얻고 韓國 또는 美國에서 시판되지 않는 품목(물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통해 보호하겠음 韓國업자가 생산허가를 요청할때는 美國특허권자의 사전합의를 받아오도록 하겠음. 美國은 이 품목(914개)을 판보에 공고하고 우리에통보했음	組成物(Composition) 250개도 다포함 914개품목이 다 보호돼야 함. 이 조성물은 의약품이 대부분이므로 보호가 더 필요함.	조성물은 구성이 복잡해 행정적으로 지도가 불가능하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함. 농림수산부 보사부가 복잡한 내용 때문에 허가를 해줄때 구분이 불가능함.	美國측은 관계부처간에 이를 검토, 3월에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음.

◇ 기타 지적소유권에 대한 것들

① 東亞제약과 Bristal myer社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마이카신 항생제에 대한 특허문제는 민간인끼리 타협을 통해 해결토록 종용.

② 보령제약과 스퀴브社간의 캡토퍼릴 고혈압치료제문제도 민간타협에 일단 맡겨 해결키로 했음.

③ 이태원 스포츠용품의 상표도용문제는 이태원일대에 美國 스포츠용품의 상표가 불법으로 붙은 모조품이 많이 나돌고 있음. 美國 스포츠용품 제조협회(ASGMA)는 「Counterfeit Crisis Korea 1987」이라는 제목으로 7분짜리 폭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요로에 상영하고 있음. 우리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에 의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음.

④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 : 82년 2월이후 제작된 소프트웨어 보호문제도 韓國측 복제가 많다고 업계가 진정하고 있음. 우리측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음.

⑤ 비디오 : MGM등 8개회사는 韓國과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외의 회사제품도 무단복제가 많음. 특히 홍콩등에서 무단복제된 것이 韓國에 유입되는 것이 많음. 수입허가시 계약내용을 점검 확인해달라고 요청. 文公部가 허가과정에서 단속해 주겠다고 약속했음. 이밖에 데이타베이스, 반도체칩 보호에 대해서도 韓國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 韓國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음. 〈옹〉